

# 전쟁 470일 만에... 총성 멈춘 가자지구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19일 발효  
6주간 인질 단계적 석방·병력 철수  
‘영구적 휴전’까지 2·3단계 합의 남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15개월간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춰 섰다. 레바논과 예멘, 이란 등지로 분쟁이 번지며 확산 일로를 걷던 중동 정세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중재국 카타르와 하마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오는 19일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랍권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는 전쟁 발발 후 470일 만이며, 1차 휴전이 파기된 지 410일 만이다.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인질들을 위한 합의(석방 합의)에 도달했다”며 “그들이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을 보면 하마스는 6주간 이어질



1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부 알발리에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에 환호하고 있다.

휴전 첫 단계에서 인질 33명을 석방한다. 이 가운데 여성, 19세 미만 어린이 등을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으로 50세 이상 남성을 풀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는 인질 중 생존자를 먼저 석방한 뒤 시신을 귀환시킬 계획이다. 일단 1주일에 3명씩 풀어주다가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를 전부 석방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귀환 작전을 ‘참사의

날개’로 명명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이후 붙들린 팔레스타인 여성·어린이 수감자는 모두 석방한다. 이에 따라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총인원은 990~1650명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추산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첫 단계에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또 전쟁 동안 피란길에 오른 가자 북부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귀환시키고, 휴전 기간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트럭 50대는 매일 연료 운반에 할당된다.

양측은 휴전 16일 차가 되면 이스라엘 남성 군인 석방과 영구적 휴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 의제를 포함하는 휴전 2단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휴전 3단계까지 이르면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을 개시한다.

최종 합의 직전 하마스가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경계를 따라 놓인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과 관련한 새 요구를 내놓으며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이스라엘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원안대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필라델피 회랑을 통해 무기를 밀수한다고 주장하며 휴전 후에도 이곳은 병력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줄곧 반대하던 하마스는 지난 달 필라델피 회랑의 이스라엘군 주둔을 수용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이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이스라엘군의 필라델피 회랑 철수는 휴전 발효 후 최대 50일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고 적혔다. 이는 휴전 1단계 내에 병력이 전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 美 국무장관 후보 “中, 극적 변화 없다면 5년 내 대만 침공”

마코 루비오 상원 인사청문회  
“중, 미가 직면한 거의 대등한 적국  
北, 권력 유지 위해 핵무기 보합화”



벌어지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안보에서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것을 중국의 허용 여부에 의존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자인 마코 루비오(사진)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위협하며,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한 적 가운데 거의 대등한 적국(near-peer adversary)”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 문제에 대해서는 “21세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루비오 후보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대만에 개입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균형에서의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10

년(2020년 1월~2029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슴도치(porcupine) 전략을 언급한 뒤 “중국이 결과적으로 대만 침공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를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고비 넘긴 LA 산불

강풍 위력 예상보다 약해 확산세 진정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강풍 경보가 발령돼 우려를 높였지만 바람 위력이 예상보다 약해 큰 고비를 넘겼다. 이에 따라 진화 작업에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화재 지역과 떨어진 LA 북부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지속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과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서부 해변과 동부 내륙에서 각각 발생한 ‘팔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각각 19%, 45%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이튼 산불 진압률이 하루 전(35%)보다 10%포인트 높아지며 진전을 보였다. 팔리세이즈 산불도 전날(17%)보다 소폭 나아졌다. 산불 면적은 팔리세이즈(96km<sup>2</sup>)와 이튼(57.1km<sup>2</sup>) 모두 사흘째 같은 수치를 유지해 확산세가 진정됐다. 기상청(NWS)은 지난 13일부터 LA 일대 산지에 최대 시속 113km의 강풍 경보를 발령해 당국과 주민을 긴장시켰으나, 실제 나타난 바람의 위력은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

## ‘中 곡집은’ 美, 첨단 생명공학장비 수출 통제... 한국은 예외

일부 기술 군사적 활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 중국 등 우려국가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수출통제를 도입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쓰는 특정 장비를 수출할 경

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개별 세포와 입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유세포 분석기, 단백질 유전 정보학에 쓰이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두 종류다. 상무부는 이들 장비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를 통해 확보한 대량의 생물학 정보

로 인공지능(AI)을 훈련해 신체 능력 향상, 합성 소재, 생물학 무기 등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수출통제 국가 그룹 A:1에 속하는 곳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그룹 D:1과 D:5에 속한 국가에는 수출을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